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성경으로 풀어 읽는 한국 초대교회사



내용 맛보기

이때부터 하디는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하디뿐 아니라 기도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월요일에 설교에서 하디는진술한 자세로 믿을 없었음과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교만했던 것을 자백했다. 교인들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과 오만을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하디의 '눈물 설교'가 교인들에게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곧바로 감동으로 바뀌었다. 교인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내렸다.하디가 인도한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였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앞 다투어 회개하였다.유명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과 개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59-160쪽)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을 때 이야기다. 이미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한 김선주 장로(그해 9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설교 도중 작은 연극 하나를 실연해 보였다.



이덕주 李德周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신학박사)을 졸업했다. 기독교문사 편집실장과 편집주간을 역임했으며 서울 신암교회와 광서교회에서 목사로 섬겼다. 현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이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부관장이며,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 교회사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연구의 결과물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한국 토착 교회 형성사 연구》, 《신석구 연구》, 《사랑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사 유적 답사기인 《눈물의 성 감화 이야기》,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 이야기》, 《종로 선교 이야기》 등을 저술했다. http://www.hsbooks.com/koreanchurch에서 저자 인터뷰와 더 자세한 책 소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를 읽고....., 《복음과 성령》 2006년 7월 15일자 서평

칼 바르트에 "설교가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설교해야 한다"고 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문을 통해 세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갈릴래이는 과학과 실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다. 이 자연세계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의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과학과 성경을, 사역자들은 신문과 성경을 두 손에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에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은?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 속에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간섭 속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신약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필체로, 술술 즐겁게 읽히는 놀라운 필력으로, 그리고 교회사 교수의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다. 읽는 내내 얼마나 줄을 그으면서 집중해서 읽었는지, 옆에

서 보던 친구가 줄을 너무 많이 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밌어서 술술 읽히는 반면, 외워야 할 역사적 사건과 인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외우자고 싶은, 읽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사도행전 기록에 빨려 들어갔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 한 대로 '성경말씀이 한반도에 응하여 한민족의 삶 속에 임하였'던 기록이 가득했다. '아브라함과 아곱과 야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 한반도 땅에도 계속 이어져서 과거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저자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이어준다.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 건너와 도와 달라고 했던 마게도나인의 영이 1882년 일본에 유학중이던 이수정에게도 임했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이수정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은 조선 땅을 밟았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던 선한사마리아인의 영이 1904년 광주 의령로 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임했다. 그리고 나병환자를 직접 안아서 옮기며 돌보던 포사이드를 보고 감동을 받은 당대의 유명한 강매 최홍중에게도 임했고, 그는 지금의 애양원을 출발시킨 '나병환자의 아바

지'로 남아 있다. 마태복을 16장 24절의 주님을 좇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무 십자가를 목에 묶고 '천리 길'을 걸어 온 소래 교인들에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자 했던 니고데모들의 영이 임했다. 마태복을 18장의 일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읽고 마을 사람들의 빛을 전부 탕감해 준 후, 가난한 전도자로 '땅 끝'을 찾아다니며 전도한 중순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여중을 자신의 양녀로 삼은 강화도 과부 교인 김 씨, 이들을 통해 전해져 온 하나님의 영은 2006년 서울의 이 씨, 강원도의 강 씨, 제주도의 고씨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을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준 역사가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더 살갑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를 기록해 준 저자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신앙시대를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영의 처음의 때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사도행전을 현재의 우리에게도 이어갈 것을 요청하신다. 마치 교보문고 입구의 노벨상 후보 사진들 끝에 있는 '이 자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라는 문구처럼 이 뒷이야기(한국 교회 나중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페이지임을 느낀다.

박찬주 《복음과 성령》편집장

한국 교회 1세대의 순전한 믿음, 처음 신앙을 찾아서

최근 '1907년 평양 대 부흥운동'을 기념하며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100년 전 평양의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의 한국 땅에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모임들이다. 그러나 어둠의 땅이던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평양 대 부흥운동'은, 단순히 한 날 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성령의 물결은 이미 1903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으로 시작됐으며, 그 회개운동의 흐름이 평양으로 이어졌다가 2년 뒤 백만명구령운동의 전도 열심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1903년 원산 부흥운동 ·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은 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한반도 한민족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회개운동 밑바탕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자 힘썼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순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책은 조선 말, 일제 침략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며 부흥을 이뤄 낸 한국 교회 1세대들의 열정과 교회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빛 문서를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의 빛을 모두 탕감해 준 부자, 노비를 양딸로 삼은 과부, 성경을 다 외워 버린 맹인,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했다가 훗날 목사가 된 사람, 세례를 받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천리 길을 걸어온 사람들..... 읽는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실천하며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보여 준 선조들의 소중한 신앙 유산을 읽을 때,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100년 전 평양에 임했던 그 성령의 물결을 다시금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저자 인터뷰

1.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내용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학문적이고 철저하게 과학적이며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그 신학적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나온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는 그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평신도뿐 아니라 중 · 고등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한국 교회 역사의 초기 부분을 풀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의 원인이 선조들이 보여 준 '처음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열정, 복음에 대한 헌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희박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단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 책의 전체적인 중심 흐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개종 1세대는 목숨을 내놓고 믿은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고 또 어떻게 신앙을 해석하고 실천하며 살았는지, 거기에서 교회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형성되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유전인자'가 돼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파된 것이지요. 저는 그 유전인자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복음적 신앙'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지극히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에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지요. 둘째, '민족적 신앙'입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기는 외세가 침략하던 때입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된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동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었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와 태극기를 같이 걸어 놓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듯 나라 사랑의 종교, 민족적 신앙의 유전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셋째, '토착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오래전부터, 종교 수양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방법들을 고안해 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새벽기도회, 통성기도, 성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외국 선교사들

이 가르쳐 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지요. 오늘날까지도 새벽기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 형태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유전인자, 즉 복음적 신앙, 민족적 신앙, 토착적 신앙을 우리가 잘 살려야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현재 교계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목하며 기념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 기념 운동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이제껏 기독교 1세대들이 축적해 놓은 신앙의 에너지로 성장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역 에너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상실하고, 교계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일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사회나 민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면에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난 초기 부흥운동이 지금의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운동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집회를 위한 집회,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 어는 집회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 즉 죄의 자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이웃 사이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요. 회개와 중생, 성화와 성결의 기독교 본질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이뤄지는 진솔한 회개, 바로 그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윤리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만이 사회적으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리더십 문제는 자기 청화에 철저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도 '저들은 사악한 세력이다'라고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소리들을 자신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반성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참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 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대부흥운동은 오늘날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사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 아픔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글을 쓰는 내가 이 글의 내용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4월 21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정리: 편집장 한수경)



“젊어선 빨갱이, 지금은 꼰통 소릴 들어”

자전예세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100쇄 돌파 김진홍 목사

“30년 전 병아리 목회자로서 청계천변에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뒹굴었던 시절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당시 발과 가슴으로 쓴 이 책을 틈틈이 꺼내 읽습니다. 30대 시절 순수했던 초심(初心)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인생교과서’라고 할까요?”

두레교회 김진홍(65) 목사의 자전예세이 《새벽을 깨우리로다》(홍성사)가 최근 100쇄를 돌파했다. 1982년 초판이 첫선을 보인 지 24년 만이다. 그간 판매부수는 32만권 정도로 초대형 베스트셀러는 아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초 청계천 판자촌을 무대로 한 기독교판 ‘교방동네 사람들’ 격인 이 책이 24년간 절판되지 않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개신교회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책을 펼치면 저 30년 전 가난에 찌들고, 병에 시들고, 술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주민들과 철거반 사이의 몸싸움이 끊이지 않는 서울 청계천 하류 성동구 송정동 무허가 판자촌의

모습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서울특별시사가 아닌 ‘서울하등시민’이라고 자조하던 곳이다. 여기에서 무허가 판자집 하나를 개조해 ‘활빈교회’를 개척한 김진홍 전도사는 스스로 ‘남마주이 생활을 하며 주민들의 대변자로 나서고 자활(自活)을 돕는다.

좌절도 많았다. “수술보증금이 없다고 병원 네 곳에서 퇴짜맞은 한 아주머니를 업고 성당교를 건너다 그 아주머니가 숨져 버렸을 때는 정말 서울에 불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네 등의 죽은 여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다. 포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다. 청계천을 덮었던 콘크리트가 제거되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된 시간의 변화처럼 당시 운동권 목회자의 대표격이었던 김 목사는 이제는 보수단체 ‘뉴라이프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목사는 “젊어선 ‘빨갱이’, 지금은 ‘꼰통 앞잡이’ 소릴 듣고 있다”며 웃었다.

김 목사는 “70년대 당시엔 가난한 극복하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 절대빈곤은 줄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늘었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를 분배,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해선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30여 년 동안 ‘실패가 전공’이라 할 만큼 저 역시 분배와 평등을 위해 싸우고, 여러 실험도 했고 실패도 했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속에 분배가 들어 있고, 자유가 신장되면 평등도 구현된다”며 “한쪽을 배척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극복, 민주화를 이룬 후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비전과 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聖殿)의 전통’뿐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광야의 전통’도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의 정신’을 회복한다면 바른 가치관과 국민정신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선일보/2006년 7월 13일/문화 A22면/김한수 기자



지면동정 1 - 김진홍 목사



“본질로의 초대”

사랑의 초대 2005 합본

이재철 목사는 2005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차례 서울극장에서 진행된 극장 집회 《사랑의 초대》에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그의 설교 12편을 묶어 발간한 《사랑의 초대 2005 합본》도 그의 이전 저서들처럼 예외 없이 우리를 본질의 문제로 초대한다. 그 ‘본질로의 초대’의 기원은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랑의 초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깨우침의 시간, 진리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모든 길은 본질로 통한다.

비록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구도자들을 배려한 많은 장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책은 원어에 대한 깊이 있고 성경적인 통찰력, 설교 한 편에 저자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전력 질주, 그리고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인물·개념들에 관한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에게 ‘공중시색’(空觀色), 즉 ‘없는 것 같고 헛것 같던’ 세상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대단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 마치 영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주인공 해리가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처럼, 《사랑의 초대 2005년 합본》은 우리를 ‘책 속에 난 길’로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한 공력(功力)이 쌓여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인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Stuart Avery Gold)의 《핑》(Ping)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장절마다 밑줄을 긋고 싶은 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마치 보드게임

카페에서 자주하는 ‘젠가’(jenga)처럼 중간의 것을 하나 뺐다고 해도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잘 쌓은 구조물과 같다. 장절마다 옥고(玉稿)이고 명언이 어서 계속 긴장한 채로 읽다가 어느 순간간 ‘핑’하고 줄었다더라도 어디서부터 다시 읽어야 할지 몰라서 대충 찾아 읽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책 속에 난 모든 길은 본질로 통하기 때문이다. 본질을 장절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기서 놓쳐도 저기서 잡을 수 있다.

그 속에 난 여러 갈래의 길

이 책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다고 숲으로 난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그 숲으로 난 길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의 저자와 부부를 비롯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과 좋은 글귀들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만나고 발견하며 주을 수 있다.

조광호 신부의 “그 대 문외의 안과 밖에서”, 김미화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김중성의 “친구에게 바치는 시”,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광우병이 아니라 광인병”, “사람의 육안으로는 태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두 번 있다. 일출과 일몰 그때만 되면 태양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만인에게 보여 준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출생과 사망 사이에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섬의 풍광이 아름답다고 보물섬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불품없는 돌섬이라도 그 속에 보물이 파묻혀 있으면 바로 보물섬이다”, “누구든지 소유보다 존재의 위험을 깨달은 자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 된다”, “참된 새해는 달력의 교체로 이뤄지지 않는

다. 참된 새해란 인간의 아름다움, 원래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숲으로 난 그 길을 걸으며 성경 아무런 보물(내용)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그의 설교에서 항상 느끼듯이 서론을 장식하는 글들이 전체와 어찌 그리고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길(문제)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다.

옥의 티, 눈의 들보

물론 이 책에도 옥의 티는 있다. 루게릭병으로 온몸의 근육이 굳어져 사망한 사진 작가 ‘김영강’을 ‘김용강’으로 잘못 표기했는가 하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개념적 오해와 ‘이재철 표’ 설교의 특징이기도 한 너무 많은 병렬형 전개가 간혹 점층이나 점진 없이 이뤄져 한 시간 분량의 설교문을 읽어 내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우리의 옥의 티도 잡아 준다. 소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이해와 실익은 개념을 바로 잡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의 티를 보면서 우리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외식하는 마음과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며, 우리 눈의 들보를 빼내 준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교정해 주는 책이 또 있을까? 어릴 때는 부모를 이기려 하고,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를 이기려 하며, 나이가 들어선 자식을 이기려 하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우리에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또 있을까? 숲으로 난 행복한 길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목회와 신학/2006년 7월/오현철 (성경대학교 설교학 교수)

소설읽기



거기에 삼류 극장이 하나 있었다. 이분 동시 상영이었다. 나는 그 극장으로 들어갔다. 영화 제목 하나는 ‘내일을 향하여 쏘아라’ 든가 하는 것이었다. 극장 안은 남녀 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좌석과 주위 공간이 가득 차 있었다. 좌석이 없어 나는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다만 영사막에 비친 영화 장면에 따라 함께 웃고 소리지르고 한숨을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아가씨가 곁에 서 있기도 하였다.

그렇게 나는 그 극장 안에서 나의 밭대 합격을 고독하게 축하하였다. 물론 합격 소식을 부산에서 전화가 오기 전에 외할머니에게 먼저 알려서 외할머니의 축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것은 고독한 축하였다. 고독한 축하라고 해서 쓸쓸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혼자 축하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웃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화가 마음에 조금 걸렸지만, 아버지도 곧 자기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기뻐할 것이 분명하였다.

우리 때부터 교양 과정과 과정이 따로 생겨 각 단계 1학년으로 들어가지 않고 1학년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모여 공대 쪽에 가서 배우게 되었다. 공대는 태능 배밭 근처에서 상계동 쪽으로 한참을 들어가는 곳에 있었다.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는지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주위 풍경이나 공기는 터할 데 없이 좋았지만 버스 속에서 육신이 당하는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도 함께 모이면 괜히 즐겁고 뿌듯하기만 하였다. 음대, 미대 등 예술계 학생은 공대 교양 과정부에 와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들 단대에서 공부하였다.

공대, 의대, 간호대, 약대 등 기술 계통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주로 문리대, 법대, 상대가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사대도 함께 있었다. 그 공대 교정은 참으로 넓었다. 교양 과정부 건물은 공대의 본 건물과는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정문으로 들어가 원편 길을 따라 한참을 가면 큰 연변장 같은 운동장이 나오고, 그 운동장을 뱅 뱅 돌러 들어가면 낡은 목조 건물들이 어디 숲 속에 숨겨진 고대 도시의 집들처럼 서 있었다. 학교 정문에서는 그런 건물이 교정 안에 있는지도조차 제대로 눈치챌 수 없었다. 그런 곳에서 대학공부가 시작되었는데, 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교 선생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어떻게 보면 반짝반짝하는 실력들은 고등학교 선생들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적이 실망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었다. 다만 남녀 공학으로 다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새로운 변화였다. 교실에서 여대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고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잔디밭 같은 곳에 함께 앉기도 하였다. 그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여대생들도 없지 않았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몇은 함께 몰려다니면서 어떤 여대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화제로 삼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사귀고 있는 여대생 내지는 여고생, 기타 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이야기하는 친구 녀석의 눈은 이미 환상에 젖어 있곤 하였다. —계속

청소년판 《레프트 비하인드》에 이어 작가 조성기의 성장소설인 《야훼의 밤》을 소설읽기2로 연재합니다.

지면동정 3·4 -레프트 비하인드

만약, 당신이 남겨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이다. 모두가 들림을 당하고 나만 남는다는 것은. 개동발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은 심판이 있기 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가 휴거의 순간에 들림을 당하고 나만 남는다면 그래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나올까. 저명한 《글로벌 위클리》의 기자인 벅, 그는 이스라엘의 변명을 가져다준 기적의 화학물을 발명한 로젠트바이크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를 만난 이스라엘에서 느닷없이 러시아의 폭격에 흡입 하나 나지 않은 이스라엘. 냉철함을 자랑하는 벅은 ‘휴거’의 전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한편 여승무원과의 일탈을 꿈꿨던 레이포드는 자신이 비행중인 747기에서 승객 100여 명이 몽땅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상상적 않은 일임을 직시한다.

휴거 이후, 지구의 운명은?

미국 기독교 출판시장과 한국 기독교 출판시장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소설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아닐까 싶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기독교 베스트 상위권을 점유했던 책을 가운대는 소설들이 상당수 있었던 데 반해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소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우는 극히 드물다. 유일하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설이 있다면 아마도 이창준 선생의 《낮은데로 임하소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홍성사가 최근 출간한 《레프트 비하인드》는 미국에서 5000만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 시리즈 소설이다. ‘휴거 이후의 지구’란 독특한 설정을 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 소설은 1996년 처음 출간된 이후, 폭발적인 인기로 합입어 게임, 음반, 어린이용 소설,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목시문학’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 만한 이 책은 휴거 이후 적그리스도와와의 전쟁이라는 자극적 종교적인 관점을 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시리즈의 새 권이 나올 때마다 아마존을 비롯한 각 언론사 베스트 집계에서 부동의 1위를

사라진 사람들 때문에 지구는 지옥같이 변했지만 어느새 평정심을 찾는다. 휴거를 준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지금, 그나마 몸을 다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휴거를 이미 예견했던, 그리고 들림을 당한 목사는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7년 대환난의 있을 것과 적그리스도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남겨진 사람들이 겪어야 할 7년 대환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평화를 위해 유엔 본부를 신바벨론으로 옮기기를 계획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새 대통령 카르마치아. 그의 전능한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지에도 그대로 넘어간다. 그것이 마치 적그리스도의 힘인 것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같은 긴박한 구성과 탄탄한 짜임새, 그리고 휴거와 관련된 성경적 계시를 적절히 조화 있게 사용하고 있어서 지루함을 단박에 날려 버린다.

연말공보 6월 28일 ‘눈에 띄는 책’
이치숙 기자(jiisook@iyeonhap.com)

차지할 만큼 일반 독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는 ‘교계에서 소설을 내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소설은 교계 출판계에서 ‘서자’였다. 따라서 미국의 초대형 베스트 소설이 이런 분위기의 한국 기독교 출판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출판한 홍성사는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낸 바 있고, 2003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레프트 비하인드,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선보인 적도 있다. 묘한 우연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소설에 대한 출판사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이달 제1권 《남겨진 사람들》을 시작으로, 다음달 2권 《환난의 군대》, 8월에 3권 《니콜라에》가 계속 출시될 예정이다. 제1권 《남겨진 사람들》에서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휴거 이후 공황상태에 빠져든 세상의 혼란스런 모습이 그려지고, 이어 《환난의 군대》에서는 참혹한 7년의 대환난과 여기에 맞서 군대를 조직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니콜라에》에서는 서서히 드러나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묘사된다.

기독교신문 2006년 6월 28일 ‘눈에 띄는 책’
김지홍 기자(atmark@kiddok.com)

역사의 종말을 앞둔 지구,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된다!

레프트 비하인드

LEF T B E H I N D

팀 라헤이 · 제리 젠킨스 지음 CR 번역연구소 옮김

1 남겨진 사람들 A5신변형 1408면 1 10,000원

2 환난의 군대 A5신변형 1392면 1 10,000원

3 니콜라에 A5신변형 1352면 1 10,000원

홍성사

기독교신문 2006년 6월 28일 '눈에 띄는 책'
김지홍 기자(atmark@kiddok.com)

책방리뷰 Review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Gift 대전치
7월 1일~31일

•행사장소:영풍문고 종로점
•내용:출간을 기념하여
(양하진 선교사 열린) 중정행사

•행사장소:교보문고 광화문점
•내용:출간을 기념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100쇄 보급판) 중정행사

•영풍문고 종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T. 02-333-5151 F. 02-333-5165 http://www.babooks.com

입고완료 入庫完了



성경으로 풀어 읽는 한국 초대교회사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한국 교회 1세대의 순전한 믿음, 처음 신앙을 찾아서!

읽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실천하며, 1903년 원산 부흥 운동 ·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의 '성령 바람'을 일으켰던 신앙 선조들의 열정과 한국 교회 성장과정을 그린 책!

"백용준의 하나님, 신석구의 하나님, 주기철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 윤희선의 하나님……" 이 책을 쓰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한 것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한국 초대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위대한 신앙 전배들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한 신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느날'에서

이덕주 지음/민음의 글들 234/A5신변형/272면/본문 2책/9,800원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이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부관장이며,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 교회사 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 〈신석구 연구〉, 〈논들의 섬 강화 이야기〉, 〈개화와 선교의 요람 정동 이야기〉 등이 있다.

100쇄 기념판

새벽을 깨우리로다

술한 방황 끝에 만난 예수, 그 복음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삶으로 전해준 김진홍 목사의 첫 저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100쇄 기념판!

기성세대들에게 어려웠던 시절의 아픔과 회복을 되새겨보게 하고 신세대들에게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 준다. 낮은 곳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한 '실천하는 목회'의 삶이 있는 증거.

"삶의 실천에서 가져오는 위대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 참된 목회자" -웃음하(yes24.com 독자서평)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빈민들을 구체적으로 섬겨나갔던 저자의 모습에서 꺼지지 않는 불령임을 본다." -11qwer(yes24.com 독자서평)

김진홍 지음/민음의 글들 6 개정판/A5신변형/264면/보급판-8,000원 · 양장판-11,500원



언제나 내 곁에 계셔요 Always Near Me

시편 139편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의 삶을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책.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A Time For Everything

전도서 3장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가 하나님께 주신 삶의 다양한 순간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돕는 책.

"얼마나 기발한 그림책인지!" ★★★★★ -아마존 독자서평

"얼마 전에 태어난 친구의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시편 139편을 아이의 언어로 담아 낸 저자의 해석은 매우 탁월하며, 적절하다." ★★★★★ -아마존 독자서평

수지 풀 글 · 그림/한미영 옮김/각권 26면/각권 7,500원

수지 풀 12년 동안 어린이책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며, 아동출판사 펍 퍼쉬(Pupfish)의 공동설립자입니다. 그녀의 그림은 〈The Lion Storyteller〉 시리즈로 잘 알려져있으며, 유아를 위한 그림책 창작하는 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2~4세의 아기는 엄마와 함께 읽고요, 5~7세의 어린이는 혼자서 읽도록 지도해 주세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던 조. 하. 문.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궁금하다!

〈이 밤을 다시 한 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등 공전의 히트곡을 잇달아 발표하며 성공가도를 달리던 조. 하. 문.은 모든 사업과 연에게 생활을 접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후, 2006년 오늘, 조. 하. 문. 그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

"이 글은 아마도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매우 사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조하문 지음/민음의 글들 235/A5신변형/256면/9,500원

조하문 1987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데뷔,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연세대 재학 시절에는 록 그룹 '미그마'를 결성, MBC대학 가요제에서 〈해아〉로 은상을 수상했다. 4집 앨범 발표 후 출연 가요제를 떠났고, 이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국제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는 목사로서 캐나다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100쇄 기념판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Audio 성숙자반

구역장 교육, 제직 훈련, 더욱 심화된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 특강'으로!

2006년 3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열린 '성숙자반 특강' 실황 녹음! 믿음, 복(福), 회개, 말씀묵상, 주님의 기도, 십계명 등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신앙의 기본 주제들을 총 10강에 담았다.

이재철 지음/양장 케이스/테이프 20개(각 60분)·강의만/49,000원

LEFT BEHIND

레프트 비하인드

역사의 종말을 앞둔 지구,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된다!

의문의 실종 사건이 터지고, '납치된 사람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진다. 한순간에 뒤엎겨 버린 인류의 운명 앞에 정체불명의 매혹적인 사나이가 세계 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묵시록의 대 예언!

〈레프트 비하인드〉의 사건이 '허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 1권 납치된 사람들
- 2권 환난의 군대
- 3권 니콜라에

6천만 부 판매! 라는 경이로운 베스트셀러 신화를 이룩한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매 시리즈 출간 때마다,

- Amazon 종합 부문 베스트셀러 1위
- USA Today 베스트셀러 1위
- 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 Publishers Weekly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
- 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

1997, 1998, 1999, 2000년 '올해의 소설'로 주목!

팀 라헤이 · 제리 켄킨스 지음/CR번역연구소 옮김/A5신변형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정식 계약을 맺은 흥성사에서 계속 출간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레프트비하인드를 쳐 보세요.

구상문학총서

제5권 詩論集
현대시창작입문

일상적 경험을 '시적 현실'로 전환하는 창작과정을 통해 시의 본연에 관한 화두를 던지는 시론집

지난 2004년 5월 11일 타계한 시인 구상의 문학총서 다섯 번째 책인 시론집 〈현대시창작입문〉이 출간되었다. 〈현대시창작입문〉은 저자의 강하나 강연, 그리고 짧은 논문들을 모은 시론집이다. 1부는 시 작법에 관한 글들로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한 것을 80년대 후반 '현대문학'에서 단행본으로 엮어낸 원고들이고, 제2부는 시에 관한 강연과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어떤 작품이 아무리 그 주제가 심각하고 훌륭한 은유로 씌어졌다 해도 그 인식의 깊이가 없거나, 그 표상의 실재가 없어서는 독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상 아무것도 얻어 낼 수가 없고 오직 시가 그 주제나 표상에 등가량의 진실을 지닐 때만이 그 시는 평이하던 난해하던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 본문에서

구상문학총서 1-4

제1권 自傳 時文集 모과 응두리에도 사연이/A5신변형/392면/15,000원

제2권 詩 오늘 속의 영원, 영원 속의 오늘/A5신변형/480면/19,000원

제3권 連作詩 개동발/A5신변형/392면/17,000원

제4권 戯曲 · TV드라마 · 시나리오 황진이/A5신변형/400면/18,000원

구상 지음/A5신변형/384면/18,000원



100쇄 기념판

교회력에 따른

대천덕 절기 설교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다 가신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절기 설교 65편!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누구나 아는 절기뿐만 아니라 오순주일, 옥순주일, 구주함례기념일, 사도바울회심기념일 등과 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절기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천덕 신부님의 신앙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는 절기별 메시지!

"이 책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당시 회중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녹음된 설교들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 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설교자 임의로 한 말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말에서

대천덕 지음/A5신변형/536면/24,000원

※〈교회력에 따른 대천덕 절기 설교〉는 1998년 도서출판 신탁에서 발간한 〈하나님의 배를 짓는 사람들〉 1, 2권을 제작자와 협의하여 개정 출간한 것입니다.

제작진행 製作進行

위기의 아이들을 태운 에텐버스

모두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결국 희망을 찾는 감동적인 실화

생후 4개월의 갓난아기였을 때 고아원에 맡겨진 존 로빈슨은 성장 과정의 대부분을 위탁가정에서 학대받으며 자랐다. 열네 살이 되었을 때 방화 혐의로 교정시설에 갔고, 그곳에서 나온 뒤로는 범죄 집단에 휘말려 소년원에서

18개월을 지냈다. 이후 노숙자로 지내며 용터와 문신,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청년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사용해서 상처받은 또 다른 아이들을 돕게 하신다. 현재 그는 버스로 맨체스터의 위험한 지역을 돌면서 청소년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에텐 버스 사역을 하고 있다. 그의 인생 변화는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감동과 도전을 준다.

존 로빈슨 · 브렌다 슬로렛 지음/전하용 옮김/민음의 글들236/A5신변형/9월초 출간 예정

책임편집: 한미영(myhan@hsbooks.com)

약 60% 진행

예수 안에서 본 미술

미술로 예수를 말하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본 미술! 예술과 예수,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고민해 오던 조각가의 성실한 고백!

"조각가의 거친 손으로 홍성사의 회화 지면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팔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한 편의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이 지면에 글을 올리기 위해 저의 작품에서 눈을 돌려 이웃의 작품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큰 구조 안에 대부분의 작품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예수, 말씀과 형상 사이에서 좌우로 치달으며 무던히 갈등해 온 저의 작품 이력이 다른 작품을 읽는 일에 작은 힘이 되기를 하였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오익석 지음/민음의글들 237/A5신변형/200면 내외/9월 출간 예정

오익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같은 학교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미술학과와 연변과기대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조각 개인전을 7회 가졌으며 저서 〈기독교와 미술〉(공저), 작품집 〈미술과 형상〉이 있다. 1989년부터 대구 가톨릭 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며 IVF 지도교수로 섬겼다.

책임편집: 이현주(LHJ@hsbooks.com)

약 60% 진행

루이스와 잭

희의자의 사도 C. S. 루이스의 생애

29년간의 친밀한 우정을 바탕으로 C. S. 루이스에 대해 들려주는 생생한 기록!

루이스의 형 워렌이 쓴 두툽한 일기와 〈루이스 가족 문서〉 외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 루이스와 저자가 나눈 29년간의 깊은 우정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 책에는 루이스의 초기 시, 친구들과 나눈 속 깊은 편지, 무어 부인과의 관계, 키프로스에서의 생활, 모들린 칼리지에서의 나날, 조이 데이빗먼 그레이엄과의 결혼 등 루이스의 특별한 인간관계와 경험들이 담겨 있으며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티이프의 편지〉 같은 세계적인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C. S. 루이스의 진짜 모습을 다가가 친구처럼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조지 세이어 지음/홍종락 옮김/민음의 글들 238/10월 말 출간 예정

조지 세이어 1934년 처음으로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 개별지도교수인 C. S. 루이스와 만나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조지 세이어는 훗날 루이스와 친구 관계로 발전했으며, 루이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지냈다. 조지 세이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1974년 은퇴할 때까지 스터티셔의 올빈 칼리지 영문과 과장으로 지냈다. 2005년 작고.

책임편집: 한수경(refuge@hsbooks.com)

약 30% 진행



Audio **성숙자반** 출간!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2탄,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②

Audio **성숙자반**

구역장 교육·제직 훈련,
더욱 심화된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 특강'으로!
-초보적 교리를 넘어 성숙한 생활로 인도하는 (Audio 성숙자반)

제1강 믿음 _ 제2강 복음 _ 제3강 회개 _ 제4강 말씀묵상 _
제5강 주님의기도 _ 제6강 십계명 _ 제7강 사도신경 _
제8강 성령의 은사 _ 제9강 사랑 _ 제10강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양장 케이스/테이프 20개(각 60분+강의안)/49,000원

이재철 목사의 기초 신앙 특강 ①

Audio **새신자반**

새신자양육·기초 신앙 교육의 오래된 길잡이
양장 케이스/테이프 20개(각 60분+강의안)/49,000원

이재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뒤, 1974년 홍성통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무받는 경영인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회사와 개인
삶에 닥쳐온 위기를 계기로 '선데이 크리스천'의 영적 위선을 벗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
1985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와 목회 수련을
거쳐 1988년 주님의교회를 개척했다. 10년 임기가 끝나자
사임한 뒤 자원하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떠나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섬겼다. 2001년 귀국하여
개신복음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며 집필에 전념하던 중,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회의 부름을 받아
2005년 7월 10일부터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성숙자반 이재철 지음


새신자반 이재철 지음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루이스 전작주의

全作主義

C. S. Lewi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양장본 208면_8,800원/보급판 232면_5,500원

순전한 기독교 양장본 352면_12,500원/보급판 352면_6,500원

고통의 문제 양장본 248면_9,000원/보급판 264면_5,500원

예기치 못한 기쁨 352면_13,000원

천국과 지옥의 이혼 192면_8,800원

헤아려 본 슬픔 128면_8,000원

시편 사색 200면_9,800원

네 가지 사랑 240면_9,800원

인간 폐지 128면_8,500원

10월 출간 예정


루이스와 잭
회의자의 사도 C.S. 루이스의 생애
조지 세이어 지음_홍종락 옮김

루이스 대 프로이트 아만드 M. 니콜라이_376면_15,800원

루이스와 톨킨 콜린 듀리에즈_360면_14,500원

나니아 나라를 찾아서 홍종락·정영훈_224면_9,500원

※ C. S. 루이스의 신앙 도서 한국어판은 홍성사가 국내 유일의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 시리즈로 펴내고 있습니다.



홍성사.